광주대 박미애 교수, 자연인으로 '마중'

정년퇴임 기념음악회…동료·제자 참여 30일 광주아트홀

"광주아트홀·디엠홀 운영 매진…후배들 무대 위해 노력"

광주대학교 음악학과 박미애(65·사진) 교수가 오는 8월, 30여 년 간의 교직생활을 뒤로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박 교수는 정년퇴임을 앞두고 이달 30일 기념 음악회를 열기로 했다. 최근 광주시 동구 황금동 사무실에서 그를 만나 정년퇴임을 앞둔 소회와 퇴직 기념 음악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 교수는 "퇴직을 앞두니 누구나 그렇듯 시원섭섭하다. 1992년 부산여대에서 시작해 광주대로 자리를 옮겨 학생들을 가르쳤다. 아쉽기도 하지만 이제 좀 쉬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 지난 2017년 명예퇴직한 남편(전 광주대 음악학과 교수)의 자유로움이 부럽기도 했다"며 웃었다.

전남여고와 서울대 음대를 졸업한 박 교수는 전국의 수많은 대학에서 제자들을 배출해 왔다. 그는 "전임교수가 되기 전 서울대, 한양대, 이화여대, 전남대 등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후 부산여대, 광주대까지 지금까지 가르친 제자만 150명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퇴직 기념 음악회를 열게 된 것 만으로도 행운이라고 했다. "최근 앞서 퇴직한 교수님들은 코로나19 여파로 기념 음악회를 열지 못했는데, 다행히 코로나 상황이 나아져 기념 음악회를 열 수 있게 됐으니 그것 만으로도 행운이다."

오는 30일 오후 3시 광주시 동구 광주아트홀에서 열리는 그의 정년퇴임 기념 음악회에는 음악계 동료와 제자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낸다.

기념 음악회 사회는 구천 국립합창단 예술 감독이 맡는다. 박 교수와는 과거 국립합창단 단원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왔다.

공연 첫 무대는 박 교수가 서울대 강사 시절 가르쳤던 소프라노 김방술(울산대 교수)과 남편 제자인 바리톤 김대수(울산대 교수)가 꾸민다.

김대수와 김방술은 각각 '나를 잊지 말아요(Non ti Scordar di me)'와 '내맘의 강물'을 솔로로 연주한 뒤 '보리밭'을 듀엣으로 부른다.

두번째 무대에는 박 교수가 직접 오른다. 이날 3곡을 연주하는 박 교수는 곡 선택이 쉽지 않았다고 했다.

"성악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아카데믹한 곡을 연주할까, 쉽게 부르고 들을 수 있는 곡을 선택할까 고민했지만 최종적으로 의미가 있는 곡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Memory'는 뮤지컬 '캣츠'에서 늙고 추악해진 고양이 '그리자벨라'가 보름달을 바라보며 '나도 옛날에 참 잘나갔는데'라며 과거를 회상하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그 내용이 지금의 제 모습 같아요."

마지막 곡 '마중'은 사람이 그리워지고, 아무도 오지 않을 때 내가 먼저 달려가서 꽃이 돼 서 있겠다는 가사로 곧 정년을 앞둔 박 교수의 심정이 담긴 노래다.

마지막 무대는 박 교수의 제자들로 구성된 한소리회가 꾸밀 예정이다. 한소리회는 소프라노 유형민, 장희정 등 박 교수를 사사한 12명의 제자들이 활동 중인 성악그룹이다. 이들은 영화 시스터액트의 OST 'I will follow him' 등을 춤과 함께 합창한다.

박 교수는 퇴임 후 계획에 대해 "퇴직하고 나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광주아트홀과 광주디엠홀 운영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전남오페라단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제자들이 공연할 수 있는 무대를 더욱 늘려가고 싶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최근 세계디자인단체협의회(WOD)에 가입했다. 사진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광주디자인진흥원, 세계디자인단체협의회 가입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국제화…SNS 통해 해외홍보·협력 기대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송진희)는 최근 세계디자인단체협의회(World Design Organization·이하 'WDO')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몬트리올에 소재한 WDO는 세계 디자인 기관 및 디자이너들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지난 1957년 출범한 비영리 단체다. 전 세계 40여 개 국가의 180여 개 디자인 기관, 협회, 대학, 대기업 등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해마다 WDO가 주최하고 각 회원기관들이 참여하는 총회 및 회의, 학술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지난 3월 가입신청서를 WDO에 제출했고, 최근 WDO로부터 이사회에서 회원 가입이 승인됐음을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WDO 가입을 계기로 디자인 국제교류는 물론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국제적 공신력과 위상을 높이고, 각국의 디자인기관과 전시콘텐츠 협력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WDO가 운영하는 SNS 채널(인스타, 페이스북, 뉴스레터)을 통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해외 홍보, 전 세계 디자이너들의 참여와 관람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국 마애불 한자리에 '피안의 미소'

손묵광 사진작가 초대전

5월24일까지 전남대박물관

국보 제84호 '서산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국보 제 84호인 '백제의 미소'(충남 서산시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등 전국의 마애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전남대박물관(관장 정금희)은 손묵광 사진작가의 초대전 '피안(彼岸)의 미소'를 오는 5월 24일까지 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연다.

손 작가는 우리나라의 문화·자연유산을 사진으로 꾸준히 기록해오며 '한국풍경' 시리즈로 그 아름다움을 전해왔다. 특히 작가는 우리 역사 속에서 민중들의 소망을 새긴 마애불의 신비롭고 잔잔한 미소에 매료돼 지난 2년간 전국을 누비며 200여 기를 촬영해 왔다.

이번 전시는 깊은 산 속 절벽에 새겨져 우리가 쉽게 만나볼 수 없는 전국의 마애불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백제의 미소'로 잘 알려진 국보 제84호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과 보물 제199호 경주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을 비롯한 25점을 선보인다.

특히 전시 작품들이 마애불의 질감을 살리기 위해 흑백으로 처리돼 은근한 깨달음의 미소가 관람객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062-530-3585.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대 '광주·전남이 읽고 톡 하다' 독서클럽 모집

전남대도서관(관장 장우권)은 '광주·전남이 읽고 톡 하다'(이하 광주전남 톡)사업의 일환으로 2022 독서클럽을 모집한다.

이번 독서클럽은 시·도민과 대학 구성원이 함께 같은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문화공동체를 이뤄나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전남대는 매년 '올해의 한 책'을 선정해 한 책 도서교환전, 테마도서 전시회, 작가 초청 한 책 톡 콘서트, 한 책 문학기행, 독서후기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독서클럽은 4명~10명 이내로 재학생 20팀, 지역민 100팀을 모집하며 마감 기한은 5월 29일. 독서클럽 회원에게는 '올해의 한 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 이용과 '한 책 문학기행' 참가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온라인(https://naver.me/FvWd2lr2)신청으로 참여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문화기관협의회 대표자회의…정책포럼 등 추진

광주문화기관협의회(간사기관 광주문화재단) 16개 기관이 최근 대표자 회의를 진행했다. 광주시와 광주문화기관협의회는 최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회의실에서 '2022년 광주문화기관협의회 상반기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기관들은 올해 공동 사업으로 문화공감 컬쳐 워크숍, 정책포럼 등 총 5개 공동협력 사업 추진을 의결했다. 또한 기관별 추진하는 문화사업 중 대 시민 문화 활동 확산에 기여도가 큰 30여개 사업들은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후원, 연대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광주문화기관협의회는 지난 2013년도에 출범해 다양한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해왔다. 현재 16개 문화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광주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광주문화기관협의회의 간사기관이면서 협의회 의장 역할을 맡고 있는 광주문화재단 황풍년 대표이사는 "올해도 광주문화기관협의회는 공동협력사업과 기관 간 활발한 교류활동을 매개로 지역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